천국 일일생활권

(행2:5~13)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 일일생활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 일일생활권'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고, 성령 충만 이야기만 하면 좀 특별한 색깔 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것,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를 한 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은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 방언은 이 오순절 성령강림 때 유일회적으로 있고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언어를 통하여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이 외국어 방언과 연결되는 것보다 먼저 연결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내용을 성령 충만을 통해 접했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언이라든지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은사, 그 외의 여러 가지 은사와 연결시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어떤 기적적인 능력보다, 먼저 연상해야 되고 연결지어야 될 것은 바로, 구름 위의 세계,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천국에 대한 근접촬영을 먼저 연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령 충만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체감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 체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과 먼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천국 위의 현실을 외국어 방언을 통하여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 방언은 한번 있고 말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천국을 근접촬영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늘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천국을 근접촬영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천국의 일일생활권입니다.
일일생활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강릉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톨게이트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두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이전에 길들이 산허리를 타고 꾸불꾸불 돌아서 대관령을 넘어올 때는 40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시간은 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두 시간 거리니까, 가끔 저를 만나러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아침 9시쯤에 출발하면 중간 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여유 있게 오셔도 12시 전에는 도착을 하십니다.
그럼 저랑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이 강릉 바닷가에 아주 좋은 커피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4시나 5시 돼서 올라가셔도 7시 8시에는 도착할 수가 있지요.

일일생활권이라는 게 이처럼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줍니다.
삶의 내용을 다양하게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삶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일일생활권의 특장이라는 거죠.
언젠가 미국의 뉴욕이 일일생활권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기권 안쪽에서 비행기로 비행하는 게 아니라 대기권 바깥으로 뚫고 수직상승을 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해서 뉴욕 상공에서 케네디 공항으로 수직하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해서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카페의 노천 테이블에서 커피 한잔 하고, 맨해튼에 있는 증권사에서 일 보고 나서, 점심에 뉴욕 스테이크 한판 거하게 때린 다음에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산책하고, 출출하니까 뉴욕 핫도그 사먹고 와도 저녁 8시면 서울에 도착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일생활권이 된다는 것은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전형적인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이 구현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뉴욕이 일일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일일생활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점잖게 신앙생활 하시고, 통성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평생 동안 수석장로님으로 지내신 장로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장로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통성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 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성령 충만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천국이 일일생활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성령 충만'이고, 이 '성령 충만'은 당연히 주님께서 승천하신 천국을 우리의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상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근접촬영 되고 접사촬영 되면서 이 세상일쯤은 뿌옇게 처리되면서 마음에서 망각되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내용이 다양해지는 이것은 당연한 수순인데도 너무나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아빠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러기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외국으로 떠나게 될 때, 이 가족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외국으로 떠난 가족과 한국에 남아있는 기러기아빠와의 연락방법입니다.
이 기러기아빠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상통화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내 피와 살 같은 자식들이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상통화로 방방이 다 보여주고 얼굴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기러기아빠와 가족들은 남편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통화를 합니다.
일 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구름 위의 세상으로 승천하고 가계신 천국에 관한 일을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로 미루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러기아빠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1년 동안 연락을 미룬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승천하신 뒤의 제일 급한 일은 어떻게 주님이 가신 천국과의 연결통로를 뚫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과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이고, 건강한 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구름 위의 세상과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내가 연락통로를 뚫을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목말라 하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천국을 근접촬영 하고 접사촬영 하게 해주시고,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이 가계신 천국과의 연결통로를 죽을 때까지 미루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된다고 미뤄놓을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천국과 연락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기러기아빠가 외국에 간 가족들로부터 1주일 2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끊어진 상태가 돼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3주만에 외국으로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일일생활권이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이 세상일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다퉈 일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다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난리를 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커피 한 잔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점심 때 되면,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스테이크 하면서 마음에 풍요로운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천국 일일생활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 충만을 통한 천국 일일생활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첫 머리에 왜 외국어 방언을 통하여 모든 각 나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근접촬영이 되면서 일일생활권 안으로 들어온 천국이, 어느 나라

누구에게도 똑같이 이제는 통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외국어 방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천국을 근접촬영 한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는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천국은 이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계층이든 어떤 문화권에 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조금도 차별 없이 천국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유일회적으로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써 천국을 근접해서 느끼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천국 일일생활권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인도사람을 만나봅니다, 느낌이 달라요,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또, 미국 안에서도 힌두교도로서의 종교적인 생활습관을 이어나갑니다.
이럴 때는 서로 영어로 아무리 말이 잘 통한다고 해도 이 사람과는 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의 배설물을 숭배하는 인도사람들에게도 천국은 똑같이 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버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잘 나가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채용광고가 나오는 것 보면 고졸자 채용공고가 나옵니다, 자격이 많이 완화되고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졸자들로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참 올바른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나온 여러분이 알고 대학 나온 제가 알지만 고등학교 나와서도 능력 발휘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다 발굴해내야지요.
그런데 천국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학력, 자격이 주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하기 전에 우선은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내 삶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우선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삶의 구성을 형성해놓고 그 다음에 돈 벌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천국 일일생활권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리고 자격을 원하시지를 않는데, 이 땅 위에서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얼마나 유식하든, 얼마나 돈이 많건 적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분들, 괜히 성형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예언이 가능해요.
못생긴 여자분이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놓잖아요? 그 여자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면 괜히 여유로움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기운…, 이거 보고도 반하지 않는 남자라면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 보고 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사는 사람의 기운, 그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천국을 내가 아프리카에 살건 할리우드에 살건 어디에 살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시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이것부터 이루어놓고 그 다음 것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통할 수 있도록 천국을 제시하시고,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사건은 만국공용어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십자가사건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고 산다는 게 뭔지만 알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천국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어를 쓰는 사람, 인도어 쓰는 사람, 아니면 필리핀 오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 종족만의 언어를 쓰는 사람도 죽음과 삶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사건, 말씀의 총화인 그 언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본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게 무엇이고 죽는 게 무엇이냐? 만 알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알면 누구에게나 제공되고 있는 천국 일일생활권의 특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다음 부분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천국을 본 자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천국이 누구에게나 제공되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게 소개된 천국에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서 천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 살 것이냐의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사건을 십자가언어를 베드로가 다음 부분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천국 일일생활권!
성령 충만의 일상화를 통하여 날마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커피 마시고 스테이크 먹으며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배부름과 마음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일상화되게 하시고, 천국이 나의 일일생활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